

JCI 아태대회 오늘 개막... 광주가 들쭉인다

〈국제청년회의소〉

광주가 역대 최대 규모인 JCI (Junior Chamber International·국제청년회의소) 아시아·태평양 대회' 특수로 들쭉이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30개국 청년리더 1만5000명이 참가하는 JCI 아·태 (ASPAC) 대회 개막을 앞두고 호텔 등 일부 숙박업소 객실이 100%

상된다. JCI 아·태대회는 매년 개최되는 4개 지역대회(유럽, 아시아태평양, 미주, 아프리카) 중 하나로 30개국 회원국 도시를 돌아가며 열리는데, 젊은 청년회원들이 대거 참가하는 만큼 타 국제대회보다 쇼핑, 음식 등 관광분야의 소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 JCI 아·태대회 주요 프로그램

요일	시간	행사	장소
13일	17:30~19:30	개막식	김대중센터
	20:20~21:30	JCI 세계회장 초청 리셉션	홀리데이인 광주
	20:00~22:30	환영의 밤+코리아 나이트	김대중센터
14일	09:00~12:00	JCI 국제연수	"
	14:00~17:00	총회 I	"
	14:00~17:00	JCI 국제연수	"
	15:00~16:30	ASPAC 세네타(일로) 이사회	"
	17:00~18:00	ASPAC 세네타 개막식	"
15일	09:00~10:00	JCI 세계 오픈 대회 예선전	"
	10:30~12:30	JCI 세계 토론 챔피언십	"
	14:00~17:00	총회 II(스피킹 대회 본선)	"
	16:30~17:30	ASPAC 세네타 합동 이사회	"
16일	09:00~12:00	총회 III	"
	14:00~16:00	JCI 지역봉사활동프로젝트	"
	20:00~24:00	갈라(폐막연회)	김대중센터

16일까지 30개국 청년리더 1만5000명 참가 호텔객실 예약마감... 음식점 문의전화 줄이어

市, 일부업소 바가지·담합 조짐에 감독 강화

마감됐고, 음식점과 유흥업소 등에도 예약전화의 폭이 줄어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특수를 틈타 일부 업소에서는 가격 담합 조짐까지 엿보여 도시 이미지 훼손이 우려된다.

12일 광주시와 JCI 아·태대회 조직위원회 등에 따르면 JCI 아·태대회가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13일 개막해 16일까지 열린다.

2013 JCI 광주 ASPAC 집행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3박 4일 동안 누적 참가회원만 국내 8000명, 해외 7000명(30개국) 등 최대 1만5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

으로 알려지고 있다. 광주시도 경제적 측면에서 생산 유발효과만 184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JCI가 비교적 재력이 있고 회원 간 친목도모를 중요시하는 젊은 청년 리더들로 구성되다보니 유 흥업소 예약도 폭주, 일부업소에서는 가격 담합 조짐까지 엿보이고 있다.

한 업주는 "이미 주말 예약은 끝난 상태며, 모처럼 찾아온 특수인데 농침수 없는 것 아니냐"며 "가격을 올려받는 것은 아니고 (술, 안주) 서비스 등 할인을 없애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저녁식사는 JCI그룹별로 해결할 예정이어서 상무지구를 중심으로 식당 예약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JCI가 비교적 재력이 있고 회원 간 친목도모를 중요시하는 젊은 청년 리더들로 구성되다보니 유 흥업소 예약도 폭주, 일부업소에서는 가격 담합 조짐까지 엿보이고 있다.

한 업주는 "이미 주말 예약은 끝난 상태며, 모처럼 찾아온 특수인데 농침수 없는 것 아니냐"며 "가격을 올려받는 것은 아니고 (술, 안주) 서비스 등 할인을 없애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JCI 관계자는 "호텔을 포함한 일부 숙박업소에서 평소보다 높은 요금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며 일부 업소에서 가격을 담합했다는 말도 있어 회원들에게 주의하도록 고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재력이 있는 젊은 회원이 많은 JCI의 특성상 관광 소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타 행사에 비해 지역경제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면서 "이들이 광주에 머무는 동안 바가지 요금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지경기자lucky@kwangju.co.kr



전병환 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때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부터 20억여원에 가까운 추징금을 한 번만 이명박 정부 때는 4만7000원을 추징했다며 박근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참여정부 20억 vs 이명박정부 4만7000원

민주당 "전두환 추징금 남탓 유감" 과거정부 책임론 반박

"박대통령, 숯세에 받은 6억 추징금 대상인지 답해야"

민주당은 12일 박근혜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 의지를 밝힌 것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추징금 환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책임을 과거 정부에 돌린 부분은 정면 반박했다.

전병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박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전두환 추징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데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이) 남 탓을 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면서 "박 대통령은 지난 정권에서 무려 3년3개월간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다수당의 대표로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과거지사를 남 탓으로 돌릴 수 없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추징금 문제도 과거 10년 이상 쌓여온 일인데 역대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고 이제야 새 정부가 의지를 갖고 해결하려 하고 있다"면서 "차제에 새 정부가 모든 것을 책임지라는 것은 난센스적인 일"이라고 '발끈'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박한 것이다.

전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기간에는 최선을 다해 추징했다"면서 구체적 수치를 들었다.

그는 "민주당에선 벤츠 승용차를 경매에 부쳐 1억원 가량을 추진했어, 아들 전재국씨 명의의 콘도 회원권 1억1194만원을 추징했다"며 "연회동 별채 경매로 16억원을 추징했어, 또 숨겨둔 서초동 땅을 찾아 1억여원을 추징했다"고 했다. 집권 시절

엔 20억원에 육박하는 추징금을 거둬들였다. 설명이다.

전 원내대표는 이어 "그러나 새누리당 집권기간인 이명박정부 기간 동안에는 불과 4만7000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 시절 여당의 대표로서 지낸 시절을 되돌아보라고 지적한 것이다.

나아가 전 원내대표는 "역외탈세 추적 과정에 마침내 '전두환 비자금'의 판도와 상자가 발견된 만큼 모든 국민은 판도라 상자를 열어서 그 속의 모든 비자금을 추징하길 요구한다"면서 "박 대통령이 일단 추징 의지를 밝힌 만큼 이번 국회에서 '전두환 추징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해자 최고위원은 박 대통령이 10·26사태 후 청와대에서 나온 뒤 전 대통령으로부터 6억원을 받은 사실을 상기시킨 뒤 "이 돈도 추징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자 박 대통령이 직접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lucky@kwangju.co.kr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예산 350억 넘을 듯

하반기 임금인상·물가 상승 예상... 역대 최고

광주시의 올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예산이 35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임금 인상과 물가 상승이 예상돼 준공영제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6년만에 가장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예산으로 본예산 300억원을 추가해 총 330억원을 반영했다. 시가 추경에 예산을 추가한 것은 올 초 시내버스 연료인 천연가스(CNG) 요금 이 전년보다 4.1% 오르는 등 재정 추가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시는 올 하반기 재정 추가 요인이 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제2차 추경에 관련 예산을 편성할 가능성도 대비하고 있다. 여기에 현재 서

울, 부산, 대구 등 시내버스 노사가 올해 임금을 3% 가량 인상한 상황에서 광주 시내버스 운전원들의 임금 인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또 부품과 차량 정비비(인건비) 등 물가상승 요인이 있어 준공영제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난 2007년 이후 가장 많은 예산인 350억원 이상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광주시는 내다보고 있다. 광주시는 준공영제 예산으로 지난 2007년 196억원을 시작으로 연간 300억원 안팎의 예산을 지원 해왔다.

광주시의 한 관계자는 "하반기 시내버스 운전사의 임금 인상과 물가 상승분은 이번 추경에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준공영제 예산으로 350억원 이상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lucky@kwangju.co.kr

1면 '남북회담 무산'서 계속

6·15 공동선언 13주년 기념 전남행사위원회는 13일 전남도의회 회의실에서 정치·종교·학술·시민사회단체 등 전남지역 각계 대표 615인이 참여한 615인 선언을 갖는다.

이들은 "전쟁위기까지 가는 우려적·황우홍 국회의원과 김재우 전 전남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전남지역 기초의원들도 참여한다. 남북 당국회담 무산 소식이 전해지자 희망에 부풀었던 이산가족들도 실

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회담 재추진을 열었다.

한정남도 출신인 김성연(80)씨는 "남북회담이 이뤄진다고 해 기대가 너무나 컸는데 너무 실망스럽다"며 "하루 빨리 남북 회담이 재추진돼 죽기 전에 고향의 친척들을 뵈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을 통해 중단됐던 대북지원과 남북교류가 재개되기를 고대했던 민간단체들도 일제히 실망감을 드러냈다.

국내 56개 대북 인도지원단체의 협의체인 대북협력 민간단체협의회는 "예전 같으면 물밑 대화를 통해 풀 수 있었던 문제로 오랜만에 열려던 당국 회담이 무산돼 대단히 실망스럽고 아쉽다"며 "서로 체제의 차이점을 인정해야 하는데 남북 당국 모두가 과도했고 정치력의 문제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새누리당 '전두환 추징법' 상임위서 논의키로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관련 발언 직후인 12일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에 대해 '상임위서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그동안 부정적 입장이 바뀔지 주목된다.

새누리당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이

날 "박 대통령의 말이 맞다"며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권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해결할 의지나 행동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과 관련해서 국민적 감정이 좋지 않을 것이 사실"이라며 "전직 대통령 한 명을 대상으로 만드는 법안은 여야 구분없이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lucky@kwangju.co.kr

사원모집

사계절 푸르른 양산다. 친환경 나비의 고장 합평다이너스티 CC에서 함께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 모집부문**
 - 웨이터, 웨이츄레스, 주부사원(신입 및 경력) 0명
 - 조리사 0명
- 자격요건**
 - 고졸이상 학력 취득자
 - 경력자 우대
- 급여**
 - 연봉제 1,900만원이상(퇴직금 별도)
 - 경력자 면접 후 결정(이력서 우측상단에 희망연봉 기재)
- 복리후생**
 - 4대보험 가입, 속식제공, 각종 수당 지급, 경조사지원, 우수사원포상, 단체상해보험가입, 교통비 지급 등
- 제출서류**
 - 이력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전형방법**
 - 우편 및 이메일 방문 접수
 - 접수기간 : 총원시까지(총원시 조기마감)
 - 서류접수 후 면접일자 개별통보
- 접수처**
 - 주 소 : 전라남도 합평군 학교면 국창리 산1-6
 - 담 당 : 경영지원팀 오승태 부팀장
 - 전 화 : 061)320-7717
 - 팩 스 : 061)320-7710
 - 이메일 : seungtae01@naver.com

합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50년 전통 대를 잇는 한의학

북경당 한의원

건강한 다이어트 한방 비만클리닉

체성분 분석기 도입, 체지방분해침 시술, 고주파 지방분해 시술

한의학박사 박상준 원장
동신대학교 외래교수 역임

KT ● 중앙초교 금남로

대한생명 ● 구.한미쇼핑 ● 동부소방서

북경당 한의원

진료문의 062)227-7575

진료시간 평 일 : 오전9시~오전7시 토요일 : 오전9시~오전4시 일요일휴진, 공휴일은 오전진료

*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80130-공-26%호

동양의학수강생모집

Self 건강관리를 위한 힐링강좌!

동양의학을 왜 배워야 하는가?

- 동양의학적 치료원리를 이해하여 자연치유력을 회복
- 서양의학과 병원치료의 한계를 극복
- 효과적인 국내외 선교 및 포교활동
- 국내 의료개방 대비와 해외한의사 진출
- 건강 및 대체의학 관련 사업의 소득증대

* 침구학 기본과정(4개월-주1회3시간)
주요과목 : 침구학개론(침·뜸기초, 경락경혈, 침구치료), 한방기초

* 동양의학 전문과정(1년~3년)
주요과목 : 중의기초이론, 진단학, 본초학, 방약학, 경혈학 등

공개강좌 광주 38기) 6월 14일(금) 13시

위치 : 삼촌역 2번출구에서 운전역방향 180m 중앙평생교육원내 2층

산동중의대 중의학 연수생 모집

3년 필업(졸업) 과정

- ◎ 교과내용 : 침구학, 침구치료학, 추나학, 해부생리학, 본초방제학, 사암오행, 동씨기혈 등
- ◎ 중국자격증, 면허 취득가능, 중의대 석박사학위 과정 진학가능
- ◎ 해외 한의대 편입 및 미국한의사시험응시가능
- ◎ 해외 한의사 진출(세계각국에서 한의원 취업 및 창업가능)

* 본 문화원은 침구학 및 대체의학을 교육하고 연구하는 것으로 의료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since 1985. 동양의학 전문교육기관

CH 아카데미

www.wch.ac.kr 전국대표번호 : 1544-5359

스마트폰 비즈니스를 선도 할 전국지사 / 대리점 및 딜러 모집

- 모든 기술 제반 본사 지원!
- 영업/마케팅을 통한 확실한 수익보장!
- 개인/기업 누구나 참여 가능!

더 가까운 서비스란?

- ▶ 스마트폰으로 상대방의 명함을 바로 인식할 수 있는
- 스마트 명함**
- ▶ 오프라인의 출입카드를 스마트폰으로 사용할 수 있는
- 스마트 출입카드**
- ▶ 강력한 스마트폰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 스마트폰 서비스**

<특허출원> 10-2013-0019348

"당신의 성공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 드립니다"

주식회사 더 가온
☎ 02)6925-2558 / 010-8794-7609
www.thegaon.co.kr

The Gaon